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는 우리가 하나로 연결돼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염원하는 KOFIH는 인류의 터전에 다시 희망의 싹이 돋아나게 하는 여정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온택트 교육은 그런 밝은 미래를 위한 훌륭한 초석입니다. 더 건강한 지구촌을 꿈꾸는 KOFIH의 의지는 온·오프라인 세상을 아우르며 세계 곳곳으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KOFIH

Letter | Vol. 56

SPRING 2021



Contents

SPRING 2021 Vol.56
www.kofih.org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KOFIH Letter

발행일 2021년 4월 8일

정기간행물신고번호 서울 중, 바00157

재단발행자등록번호 정기-6-2021-1

발행인 추무진

편집인 최원일

발행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주소 04533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

재능교육빌딩 6, 7층

전화 02-3396-9700

기획·편집 KOFIH 경영기획부

02-3396-9830

취재·디자인·제작 코리아프린테크

02-2264-3325

발행에 도움을 주신 보건복지부 및 보건의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계간으로 발행되는 <KOFIH Letter>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ISSN 2508-3481



08

- 04 2021 KOFIH Project Map
KOFIH 주요 사업 현황 지도
- 06 KOFIH Letter
“국내외의 가려진 이웃들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KOFIH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08 포토 에세이
사진으로 보는 KOFIH의
감염병 관리사업 및 온택트 교육 현장
- 10 KOFIH 히스토리
탄생부터 성장까지...
되돌아본 KOFIH의 청년기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는 우리가 하나로 연결돼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염원하는 KOFIH는 인류의 터전에 다시 희망의 싹이 돌아나게 하는 여정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온택트 교육은 그런 밝은 미래를 위한 훌륭한 초석입니다. 더 건강한 지구촌을 꿈꾸는 KOFIH의 의지는 온·오프라인 세상을 아우르며 세계 곳곳으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12



18



24



26



28

Explore the World / 세계 속의 KOFIH

- 12 KOFIH 리포트 I
코로나19로 한층 견고해진
KOFIH와 협력국의 파트너십
- 16 KOFIH 인포그래픽
우간다 국가 결핵관리 역량강화사업
- 18 KOFIH The Way Forward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라인 교육의 활용
- 20 KOFIH 리포트 II
비대면 교육으로 함께하는
KOFIH의 글로벌 파트너십

INSIDE KOFIH / KOFIH 속으로

- 22 현장 다이어리
KOFIH 라오스·우간다 사무소
열정으로 사이와 사이를 잇다
- 24 KOFIH 산책
KOFIH, 협력국과의 상생 좌표를 찾다
- 라오스 시엥쿠앙도(道)
- 26 KOFIH 인사이트
우리의 새싹들을 위한
베트남 귀환여성 자녀 보건의료 지원사업
- 28 KOFIH News
KOFIH의 주요 동향과 이슈



개발도상국, 북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이를 통하여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의거 2006년에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34

CULTURE FOR YOU / KOFIH 문화산책

- 32 KOFIH 지식백과
'KOFIH의 동반자' 협력국,
그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할 질병은?
- 34 21세기 신종 감염병 바로 알기
변이 바이러스의 잇단 출현...
코로나19는 지금도 진화 중
- 36 독자의 소리
함께 만드는 <KOFIH Letter>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모자보건 등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



결핵 등
감염병 관리사업



의료기기
관리운영체계
구축사업



병원 운영
컨설팅 사업



민관협력사업



응급의료체계
강화사업



건강보험 정책
컨설팅 사업



북한 보건의료
지원사업



재외동포
보건의료
지원사업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
지원사업



해외긴급구호
보건의료인력
역량강화사업



의료자원
지원사업



COVID-19 대응
지원사업

2021 KOFIH PROJECT MAP

SINCE ITS ESTABLISHMENT IN 2006, THE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 (KOFIH) HAS IMPLEMENTED VARIOUS PROJECTS DEDICATED TO THE BETTERMENT OF HEALTH AND MEDICAL SYSTEMS AND BOLSTER CAPACITIES FOR THE PEOPLE IN PARTNER COUNT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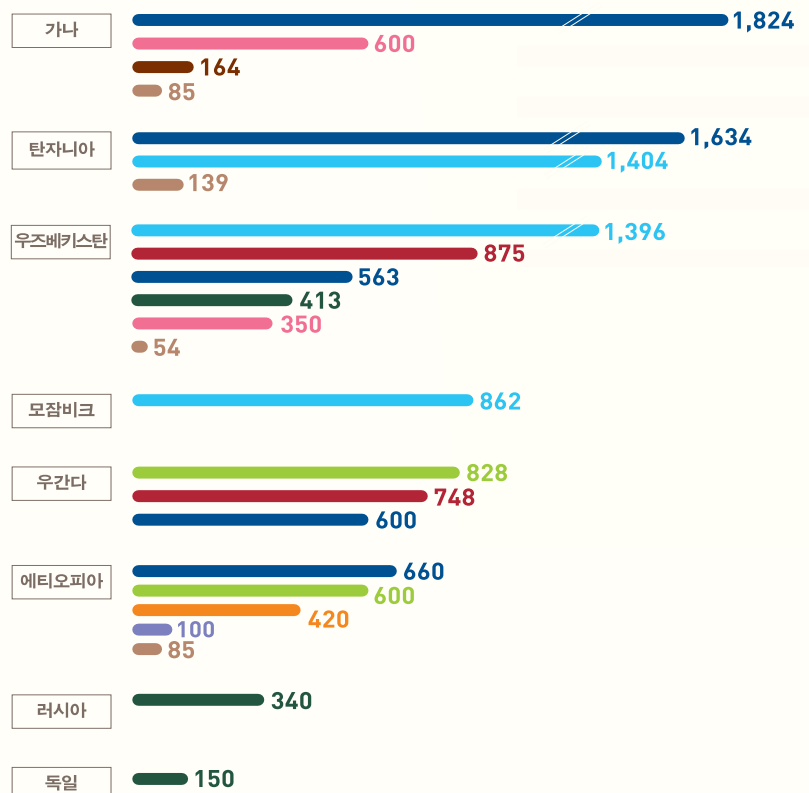
GERMANY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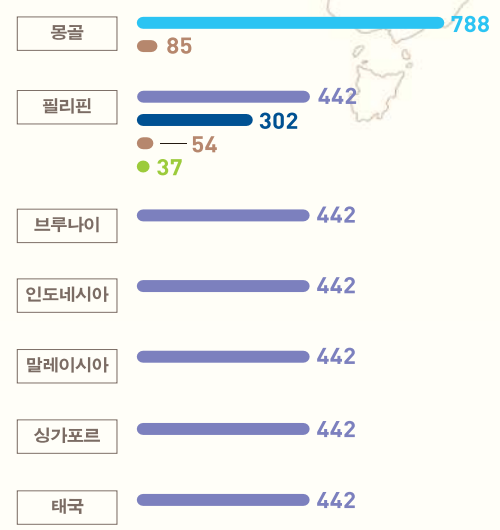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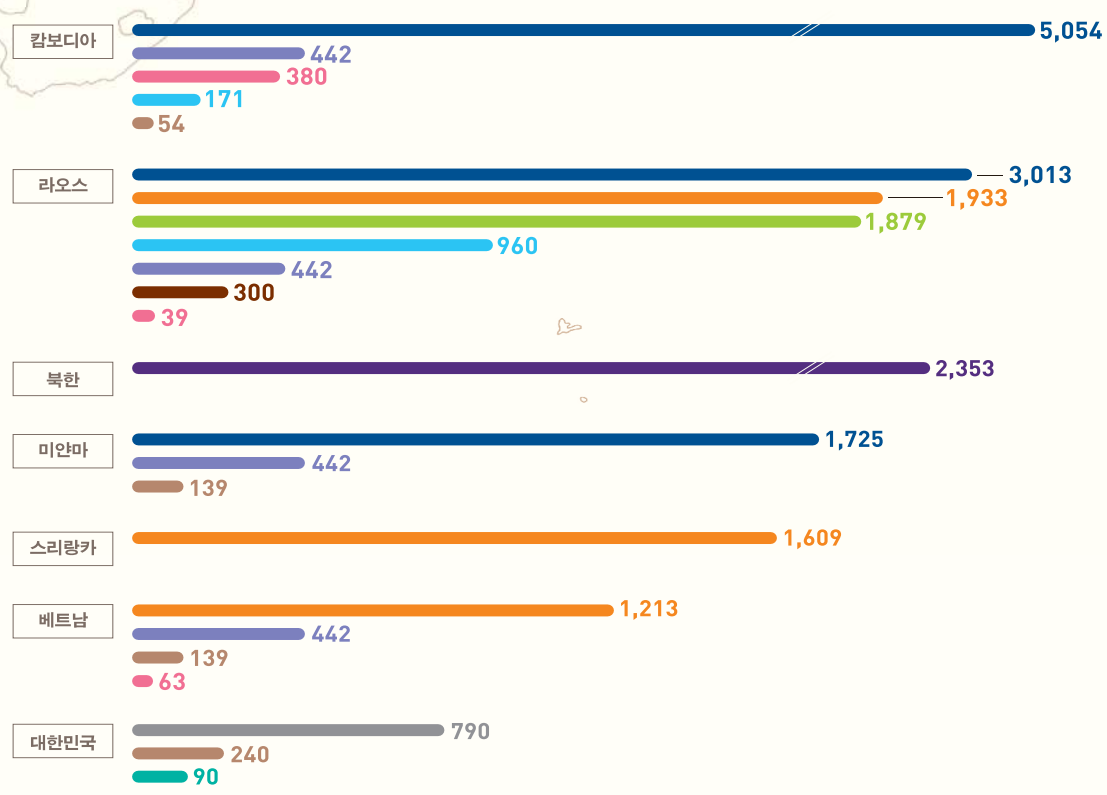


GHANA (가나)



(단위 : 백만원)





“국내외의 가려진 이웃들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KOFIH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OFIH Letter> 독자 여러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추무진입니다.

새싹이 움트는 계절, 독자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가운 마음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1년 넘은 시점에서 국민들, 특히 의료인과 보건의료 종사자, 자영업자, 소외계층 등의 지친 마음이 더욱 아프게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2월 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및 화이자 백신 예방 접종을 시작으로 국내 코로나19 방역 국면에도 봄이 찾아올 것을 기대해봅니다.

지난 한 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은 국제보건의료 지원 전문기관으로서 협력국들의 코로나19 대응에 선제적으로 참여해 총 8개국에 이동식 X-ray, 개인보호장비, 진단키트, K-워크스루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안정적인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실적을 인정받아 올해 2월 국무조정실장 및 외교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사업담당자 교육, 해외긴급구호 보수교육, 북한 보건의료 아카데미, 이종욱펠로우십 입교식 및 오리엔테이션 등 그간 대면으로 진행하던 교육과정을 코로나19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신속히 전환해 교육생들의 역량 강화에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KOFIH Letter> 2021년 봄호에서는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응과 비대면 교육 전환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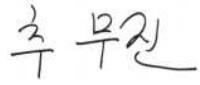
2021년에도 KOFIH는 글로벌 건강 증진을 위한 개발협력 전문기관으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방향으로선 협력국 보건의료 국가전략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지 사무소 중심의 사업 수행을 추진해 사업의 내실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 및 지역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의 경우 8개 협력국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관리자 역량 강화 등 사업을 수행 중이며, 중장기 초청연수사업(이종욱펠로우십)은 임상, 교수, 감염병, 보건정책, 학위, 의공 6개 과정 11개국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 인적자원 육성을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해 아세안 10개국에 진단키트, 방호복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감염성 질환 관리를 위해 라오스, 에티오피아, 우간다에 결핵관리체계 강화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우리의 이웃이며, 결국 우리는 모두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방역물품 및 백신 확보에서 소외되고 있는 중저소득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노력은 국내의 코로나19 종식과도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국내외의 가려진 이웃들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국제보건의료 지원 전문기관 KOFIH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OFIH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인류에게 불어닥친 위기는 우리가 하나로 연결돼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류의 터전엔 다시 희망의 싹이 돋아납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염원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도 그 기적의 여정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전해지는 희망의 손길을 맞잡으며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을 그날을 그림니다. 온택트 (Ontact) 교육은 그런 밝은 미래를 위한 훌륭한 초석이 됩니다. 더 건강한 지구촌을 꿈꾸는 KOFIH의 의지는 이렇게 온·오프라인 세상을 아우르며 세계 곳곳으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탄생부터 성장까지... 되돌아본 KOFIH의 청년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세상에 나온 지 어느덧 15년이 됐다. 국제보건의료 지원을 위해 걸어진 KOFIH의 15년은 그만큼의 업적과 더불어 질적인 성장까지 이뤄낸 시간이었다. 그리 많게 느껴지지 않는 숫자일 수도 있지만, 그 숫자는 KOFIH의 활동이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새로운 희망이 돼온 나날들의 소중한 증거다. 글로벌 보건의료 파트너로서 차근차근 성장해온 KOFIH의 발자취를 되돌아본다.

* 2012~2015년 'KOFIH 히스토리'는 여름호에 게재됩니다.

글_ 송준호

2006년

글로벌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할 단체의 탄생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창립
2006년 8월 18일



재단 의료기기 지원센터 완공

의료기기 및 의약품, 의료 소모품 등 확보. 개발도상국, 의료봉사 단체,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소 등에 지원해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도모.

2007년

이념의 차йма저
초월한 인도주의



북한 온정인민병원 재개원

2006년 북한에 큰 수해가 발생했을 때 1억5000만원 상당의 의약품과 밀가루 지원을 인연으로 북측과 온정리 인민병원 현대화 사업에 합의. 완공 후 2009년까지 수십 차례 남북 합동진료 진행.

2008년

글로벌
건강 증진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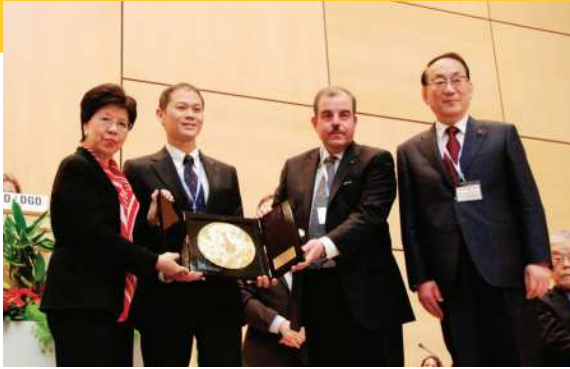


탄자니아 기생충 관리사업

탄자니아 잔지바르섬에서 3년 동안 총 6개 학교 3500여 명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신체 계측과 기생충 감염 조사 및 구충제 제공.

2009년

이종욱 전 WHO 사무총장의 정신을 잇는 행보



이종욱 공공보건기념상 수여

고(故) 이종욱 전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재단이 후원하고 WHO가 제정. 2009년부터 공공보건 분야에서 뛰어난 공헌을 한 개인 및 기관 등에 주는 국제적인 상으로, 매년 5월 세계보건총회 중에 수여.



스리랑카 아비사웰라 응급의료센터(PCU) 준공식

2004년 인도양 지진해일 당시 재단의 활동 지역이었던 스리랑카 아비사웰라 지역에 보건의료인력 긴급구호단 구성, 파견. 향후 재단 공적개발원조(ODA)사업으로 연결돼 2009년 지역 응급의료센터 건립.

2010년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인류애 실천



우즈베키스탄 아리랑요양원 개원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 간 합의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땅과 건물을 무상증여하고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건물 건축. 요양원 운영은 재단이 맡음.



이종욱-서울 프로젝트 업무협약(MOU)

재단과 서울대 의과대학은 개발도상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장기 연수 프로그램 '이종욱-서울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 라오스 보건부, 국립의대 및 중앙병원 소속 교수진과 의사·간호사·보건관리자 등을 초청 연수해 연수생 개인과 조직의 역량을 강화.

2011년

선진 의료 자산 전하는 K-보건의료의 출발

우즈베키스탄 메디컬소셜센터 시설 개보수 및 의료기기 지원

타슈켄트 도시에 있는 메디컬소셜센터 개보수 및 의료기기 지원, 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여성 및 아동의 건강 증진. 2009년부터는 신생아의 선천적 장애를 방지하는 보건의료 지원사업 진행, 2011년엔 노후된 메디컬소셜센터 재개원.



건강한 지구촌을 위한 국제협력의 길

코로나19로 한층 견고해진 KOFIH와 협력국의 파트너십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의 이목은 한국의 감염병 관리에 집중됐다. 특히 보건의료체계가 열악한 공적개발원조(ODA) 협력국들에게 이른바 'K-방역'의 체계적이고 선진적인 대응 방식은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 됐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은 자원 교류와 노하우 공유를 통해 협력국 현지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왔다. 글로벌 방역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수가 된 시대, KOFIH는 인류의 건강과 안전한 미래를 위해 변함없는 파트너십을 지속하고 있다.

글_ 송준호

코로나19 발생 1년여... 'K-방역'으로 연결된 세계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1년여 몸살을 앓고 있지만, 한국은 확산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처로 위기를 관리하고 있다. 이후 세계 각국에서 K-방역에 대한 공유 요청이 쇄도했고, 이를 처리하고자 12개 정부부처와 KOFIH 등 6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국제 방역협력 총괄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기도 했다.

특히 KOFIH를 비롯한 우리 정부 산하기관들은 국제개발협력의 파트너로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ODA 협력국에 지속적인 지원과 교류를 계속하고 있다. 진단키트와 리얼타임 PCR, 디지털 포터블 X-ray, 인공 호흡기, 개인보호장비(PPE) 등 다양한 방역 물자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각 협력국에 전달됐다.

아시아 협력국 중 라오스에서는 코로나19 대응 회의 및 교육을 중심



으로 코로나19 모니터링과 관리 감독에 대한 지원이 먼저 이뤄졌다. KOFIH는 중앙 비상대응센터 역량강화와 국경검역소 정비 및 역량강화 등에도 힘을 보탰다. 캄보디아에는 포터블 X-ray와 환자감시장치를 전달하며 X-ray 촬영장치 액세서리와 현지 교육까지 함께 지원했다. 미얀마에는 방호복과 장갑 등 개인보호장비 1000세트를 비롯해 포터블 X-ray를 지난해 10월까지 우선 전달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보건부와 국립아동병원 지원용인 신속항원진단키트 4800회분과 방호복, 방호덧신, 고글, 마스크, 장갑 등 개인보호장비 8종이 먼저 지원됐다. 이 중 보건부와 타슈켄트 엠블런스센터에 필요한 신속항원진단키트는 3월 중 또 한 차례 운송이 진행됐다. KOFIH는 올해 아세안 기금 예산 변경을 추진해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예산을 마련하고 아세안 10개국 운송비 예산을 추가하는 등의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아프리카 협력국에도 KOFIH의 지원과 교류는 계속됐다. 가나에는 지난해 중앙보건부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의료인력에 감염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1월에도 볼타 및 오티주에서 진행 중인 모자보건 증진 2차 사업에서 의료진에 대한 역량강화교육과 코로나19 시설 감염예방교육이 이뤄졌다. 우간다에는 코로나19 진단키트와 방호복, 고글, 마스크 같은 개인보호장비 등 대응 물품이 일찌감치 지원된 바 있다.

탄자니아에는 장갑, 고글, 장화, 페이스 실드, 마스크, 수술복 등의 개인 보호장비가 각각 6월과 10월에 보건부와 프와니주 보건국에 고루 지원됐다. 올 초에는 무함빌리국립병원에 환자용 모니터와 비접촉식 체온계, 네블라이저 등 감염병 대응 의료기기를 발송해 현지 상황에 보탬이 됐다. 또 에티오피아에는 기 지원된 모자보건증진사업 국제부담금 일부를 활용해 오로미아 보건국의 코로나19 대응 물품을 구매하는 계획이 승인된 상태다.

국적을 가리지 않는 ‘방역 우산’

한국의 선진적인 방역체계와 서비스가 해외 협력국만을 향하는 것은 아니다. KOFIH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질병 예방과 보건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실행하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질병관리청 및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다국어 자료를 번역해 제공하는 등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힘썼다. 질병관리청을 통해서는 코로나19 대응지침과 격리대상자 생활지침 등 6종을 17개 언어로 번역해 지원했다. 행정안전부를 통해서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지원 안내 자료와 문자 메시지용 자료를 11개 언어로 지원했다. 이는 최대한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방역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용 마스크는 한 해 동안 외국인 근로자 및 자녀에게 2만5000매가 전달됐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권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했다. 7개 기관 소속 전문가 8명과 KOFIH 관련자 6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과 현장 상황이 공유됐고, 코로나19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재단의 역할과 사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KOFIH는 외국인 근로자의 보건관리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도 실시했다. 물론 대면교육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ZOOM)을 활용해 실시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했다. 이 결과,

대면교육에 비해 접근성이 상승해 2019년 대비 122%나 교육생이 증가했다.

KOFIH는 구체적인 물자 지원과 교육 외에도 일상생활에서의 자가관리를 위한 서비스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건강정보 자료 제작과 지원사업이 그것이다. 일상에서 건강정보의 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작된 책자 <내 건강 지킴이>는 66개 외국인 근로자 지원단체에 9258권이 배포됐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요가 많은 치과 건강관리에 대한 원고도 제작됐다. 지역별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운영 중인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가 집필을 완료한 상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의 관심사는 감염병 일반에 대한 경계와 대비에 쏠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KOFIH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감염병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 백신을 지원하기도 했다. 2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백신 수요 조사를 진행한 후, 29개 기관에 파상풍·디프테리아 백신 520도즈와 인플루엔자 백신 2200도즈를 지원해 접종을 진행했다. KOFIH는 향후 유행성 감염병 등에 대한 선호도를 반영해 백신 종류를 조정하고, 아울러 백신 접종률의 필요성과 주의사항 등 접종 전후에 필요한 자료를 다국어로 제작해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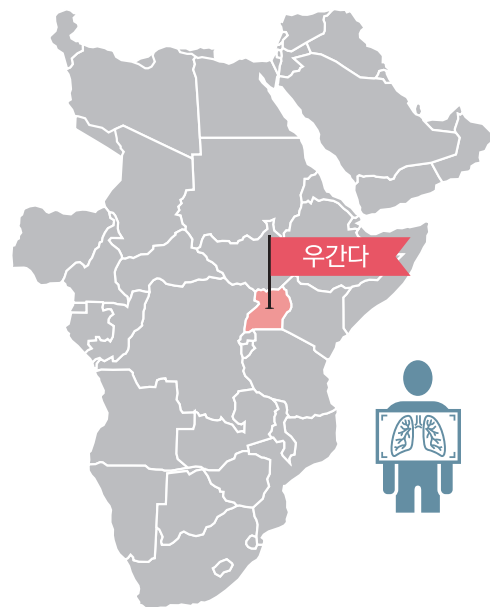


우간다 국가 결핵관리 역량강화사업

전 세계 결핵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아프리카의 유병률은 약 25만 명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지에서는 지속적인 교육훈련 및 기술 지원의 확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우간다는 아프리카에서 결핵 퇴치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



우간다 결핵관리 분기별 검토 회의.





우간다 결핵 컨설팅 방문 출장.

인 나라다. 이를 상징하는 것이 우간다 국제결핵연구소다. 이 연구소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동아프리카 최초로 국제결핵연구소 인증을 받았고, 의학 분야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증제도를 획득한 결핵 진단관리 중점 연구소다. KOFIH와 우간다 국제결핵연구소는 2016년 결핵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우간다를 거점으로 지역 결핵 퇴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뜻을 모은 바 있다.

이후 KOFIH는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Safe Life for All)’을 실천하기 위해 우간다를 거점으로 하는 아프리카 협력국의 자체적인 결핵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기울여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간다의 캄팔라, 마사카, 부코만심비군 지역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간 수행 중인 국가 결핵관리 역량강화사업이다. 이는 결핵관리와 진단검사체계의 역량강화를 통해 감염병 대응 능력을 제고한다는 취지의 사업이다.

2019년 11월부터 6개월 간 진행된 3차 연도 사업은 우간다 보건부 국

립결핵실험실과 부코만심비군 보건국을 중심으로 결핵관리 및 결핵 검진 자립 역량강화가 이뤄졌다. 두 수행기관이 중심이 된 사업은 인적·물적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실적을 내왔다. 우간다 결핵관리 인력 결핵검사기법 고도화 및 자립 역량강화사업에서는 마사카 및 부코만심비군 결핵요원을 대상으로 한 생물안전성 교육을 진행했다. 또 국립결핵실험실 인력 대상 WHO 인증 실험실 품질개선 교육과 동아프리카 결핵요원 교육 커리큘럼 개발 워크숍 등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 훈련 성과가 돋보인다.

치료와 검사 역량강화를 위해 우간다 결핵관리체계를 구축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다. 결핵환자의 가족 접촉자를 추적 관리한 것을 기본으로, 신속진단검사용 객담 검체의 상위 보건소 운송을 실행한 것은 환자 동선 파악과 감염 후 빠른 대처를 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다. 또 부코만심비군 지역주민 인식 제고를 위한 라디오 토크쇼와 함께 결핵관리 보건시설 인력을 대상으로 진행한 멘토십 활동도 결핵에 관한 지식을 증진하는 데 보탬이 됐다. 무엇보다 키탄다III 보건소 실험실 공사 등 환경 개선을 통해 인프라를 정비한 것은 향후 결핵 대응에 있어 훌륭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나해의 이러한 인프라 개선과 기술 지원, 인력 역량강화를 통해 얻어낸 성과는 우간다 보건부가 내세운 국가보건전략(National Health Policy II)과도 연결된다. 실제로도 이 사업을 통해 국립결핵실험실 연구원의 검사역량은 목표치(90%)를 초과 달성했고, 사업 지역의 결핵 발견율과 치료 성공률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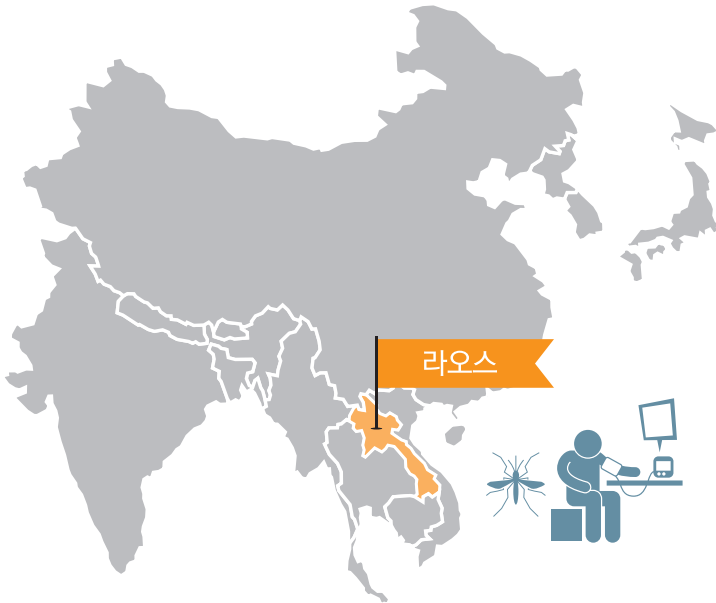


라오스 감염병 진단 및 검역체계 구축사업

고온다습한 열대성 기후로 각종 풍토병이나 전염병이 수시로 발생하는 라오스는 감염병 유입에 관한 감시체계는 허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산악지대에 거주하고 있어 보건당국의 감염 감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감염병 유행이 발생해도 이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적 역량은 부족한 상태다. 최근의 코로나19를 제외하더라도 말라

리아, 땡기열, 각종 기생충 질환, 요오드 결핍증, 콜레라 등의 질병 때문에 감염병관리국과 국가중앙실험실 등이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때문에 라오스에서는 감염병 대응 인력에 대한 역량강화와 더불어 해외 유입 감염병과 국내 토착 감염병에 대한 위험 평가체계와 감염병 감시체계의 구축과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돼왔다. 이에 2016년 KOFIH와 한국 보건복지부, 라오스 보건부는 ‘감염병 관리 강화 업무



라오스 감염병 관리 모니터링 및 감독.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라오스 보건부 개인보호장비 기증.

협약'을 체결하고, 감염병 감시와 평가 및 대응체계 강화와 관련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KOFIH와 라오스 보건부, KT는 한국의 발전된 정보기술(IT) 능력을 활용한 감염병 확산 방지 플랫폼(GEPP)을 활용해 본격적인 역량강화사업을 시작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반 감염병 위험 알림 서비스라는 한국의 선진 감염병 관리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해 라오스의 감염병 관리체계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라오스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분야 5개년 개발계획' 중 감염병 관리시스템 강화사업과 연결된다.

감염병 관리 관계자도 국내 초청 워크숍을 통해 역량강화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라오스 보건부 감염병관리국과 국립역학실험센터 관계자들은 한국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을 방문해 감염병 관리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라오스 보건부 감염병 관리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종합적인 역량도 향상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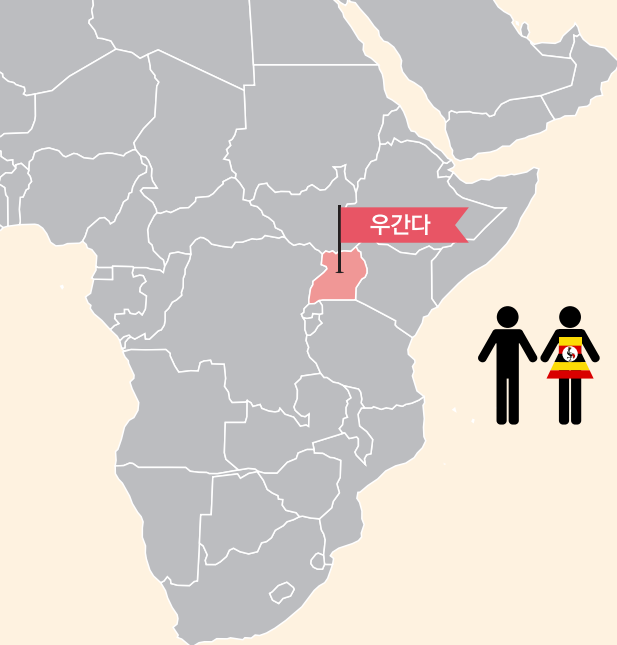
이러한 2019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에는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과 거버넌스 강화에서 심화된 사업들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중앙과 지방 감염

병 관리 회의와 워크숍을 지원해 감염병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1차 목표였다. 현장을 점검해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감독과 모니터링 활동도 주요한 과업 중 하나였다.

감염병 유입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은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더욱 중요한 사업이 됐다. 열감지기 및 환자격리실 시설 지원, 감염병 출입국 관리 인력 교육훈련, 공항 내 환자 발생 모의훈련 등 감염병 출입국 관리기술 지원은 향후에도 현지 보건위생 관리시스템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KOFIH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검역소 신축 등 모니터링과 지원을 통해 향후에도 라오스의 감염병 관리 역량강화에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K**

그림으로 쉽게 보는 '우간다 국가 결핵관리 역량강화사업'

모두가 건강한 지구촌을 꿈꾸는
KOFIH는 우간다의 결핵 퇴치사업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0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은
2017년부터 우간다 보건부 국립결핵실험실,
부코만심비군 보건국과 함께
'우간다 국가 결핵관리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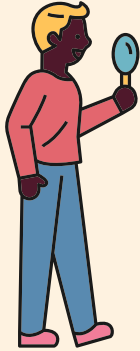


사업 개요

- ▶ 수행기간 : 2017~2021년(5개년)
- ▶ 사업지역 : 우간다 마사카·부코만심비군(district)
- ▶ 수혜대상 : 우간다 결핵요원, 마사카·부코만심비 지역주민 약 48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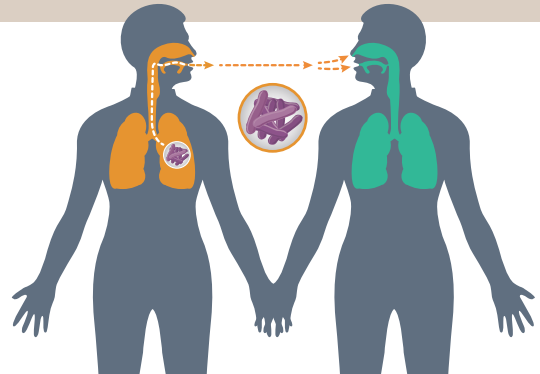
02

이 사업을 통해 KOFIH는 우간다의 결핵관리 및
진단검사체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현지 감염병 대응능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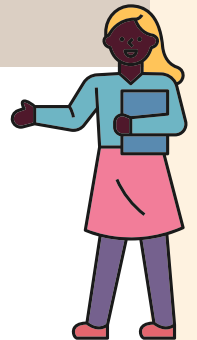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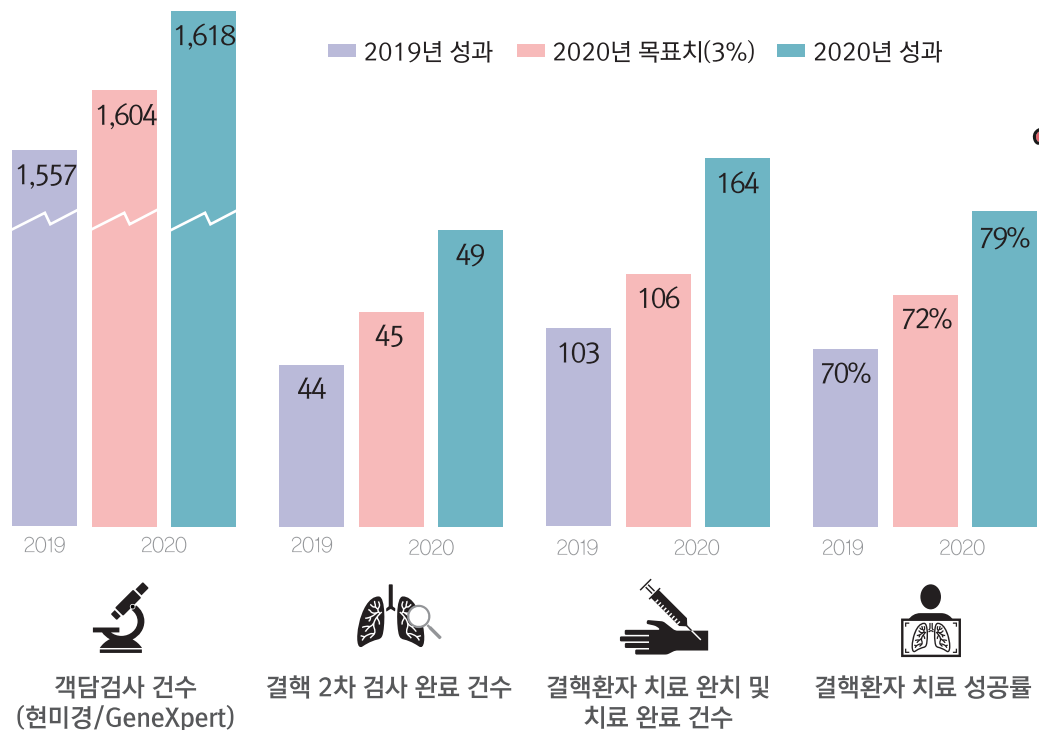
- ▶ 우간다 결핵관리인력 결핵검사기법
고도화 및 자립 역량 강화
- ▶ 치료 및 검사 역량 강화를 위한
우간다 결핵관리체계 구축 지원
- ▶ 결핵실험실 시설 환경 개선 및
장비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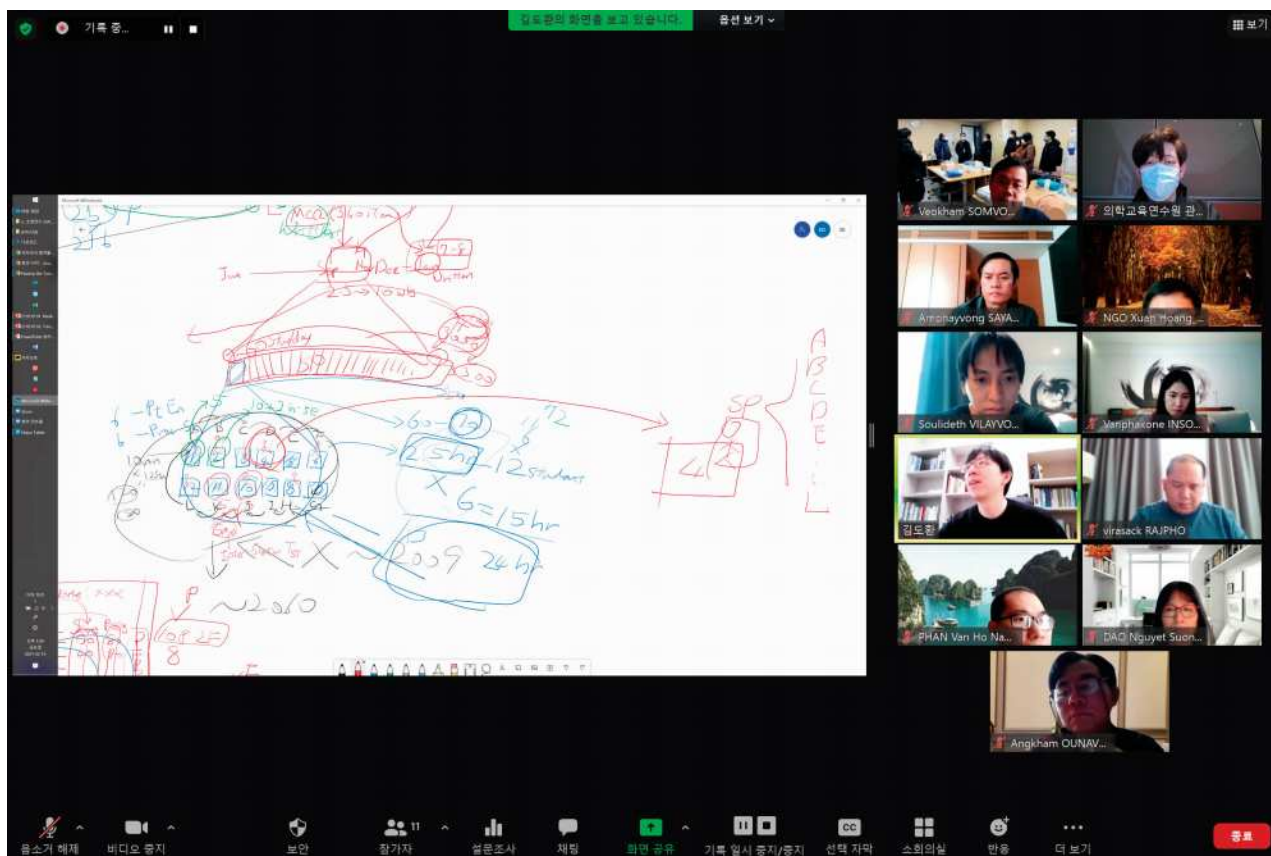
03

특히 결핵 취약지역인 부코만심비군에서 뛰어난 결핵관리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2019년 대비 2020년 성과 기준).

2020년 결핵 취약지역(부코만심비) 결핵관리 역량 주요 지표 성과



※ 출처 : 우간다 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DHS) 데이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라인 교육의 활용



글_ 신좌섭 서울대 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

온라인 교육에 관한 몇 가지 불편한 사실들

코로나19 사태가 초청연수사업에 미친 영향은 치명적 수준이다. 국경봉쇄로 연수생들이 입국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고, 이국땅에서 팬데믹을 겪는 두려움 때문에 애초에 입국을 포기하거나 연수를 중단하고 귀국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연수를 강행한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입국 2주, 귀국 2주, 총 4주의 격리를 거쳐야 했고, 귀국을 앞두고 국경이 봉쇄돼 특별 항공편을 하염없이 기다리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온라인 교육이다. 온라인 교육은 이미 20여 년 전에 블루오션으로 각광받은 적이 있으나, 최근 까지도 대입 인터넷강의나 법정 의무교육 등 외재적 동기가 강한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는 일상 속에 깊이 침투하지 못했다. 그러던 것이 코로나19의 대유행에 의해 순식간에 일상 속으로 밀려들어 온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 교육은 아직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다. 우선, 네트워크 환경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기반시설이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기업들은 개발도상국의 낮은 대역폭(low bandwidth)에서도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충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 의학 분야, 특히 임상 분야에서 필수불가결한, 몸으로 직접 경험해 보는 실천학습(hands-on practice)이 어렵다는 것도 중요한 장애다. 이 때문에 일부 임상과정의 경우 연수생들이 본국에서 온라인으로 이론학습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 실천학습을 하는 구조를 채택했으나 '이론-실천-이론-실천'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한편 연수교육의 목적이 지식·기술의 습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는 점도 기억돼야 한다. 연수생들은 인지영역(cognitive domain), 정동영역(psychomotor domain)의 역량만이 아니라 한국의 선진적인 의료 환경, 한국인의 독특한 문화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는데 온라인 교육으로는 이 같은 기회를 얻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인지·정동영역 교육에서도 대면교육에 비해 사회적·정서적 실존감(socio-emotional presence)이 낮아 교사-학생의 상호관계 형성이 어렵고, 교육계획을 학생의 개별적 특성에 맞춰 구사하는 유연한 접근이 어려울 뿐더러(high transactional distance), 동료학생 간에 비언어적 상호작용이 쉽지 않은 등의 한계가 있다.

요즘 각광받고 있는 Zoom, Webex, MS Teams 등 실시간 화상회의 시스템은 매우 편리하지만, 사용자에게 적지 않은 피로감(Zoom fatigue)을 유발한다. 다른 참가자와 눈을 맞추기 위해 부자연스러운 노력을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위해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며, 한 자리에 같은 자세로 오래 머물러야 하고, 자신의 얼굴을 포함한 다수의 얼굴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평소 자기 얼굴을 마주하고 관찰하는 것은 거울을 들여다볼 때 정도이지만 화상회의에서는 자기 얼굴을 계속 모니터하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고, 또 발언자의 얼굴이 확대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사용자는 발언자를 진화론적 측면에서 ‘짝(mate)’이나 ‘적(enemy)’으로 판별해야 하는 본능적 태세를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온라인 교육과 대면교육의 혼합이 효과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온라인 테크놀로지로도 할 수 있는 일은 적지 않다. 그간 필자가 이종욱펠로우십 보건인력교육 전문과과정 등을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요약하고자 한다.

우선 온라인 교육과 대면교육의 혼합(blended) 모드를 활용하는 것이 ‘당연히’ 효과적이다. 요즘 유행하는 소위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의 접근법으로, VOD를 통해 기본적 콘텐츠를 제공하고 대면교육을 통해 질의응답, 문제해결, 프로젝트 학습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물론 소규모 대면교육조차 시행할 수 없는 엄격한 방역 단계일 경우가 문제인데, 이럴 때는 대면교육을 실시간 화상회의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 교육에는 지식전달 강의 VOD, 화상회의 시스템 줌, 상호작용 도구 등 3개 범주의 기술을 활용했다. VOD는 교수들의 편의

를 위해 파워포인트에 음성을 입히는 정도 수준으로 제한하고 하나의 콘텐츠가 30분을 넘지 않도록 했으며, 추가 학습을 위한 참고자료와 과제를 제공하고 사후 테스트를 통해 스스로 학습 결과를 체크하도록 했다. 서울대 의대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통해 학습자들의 행동과 이력을 추적하는 데이터를 수집한 것은 물론이다.

실시간 화상회의를 통해선 심화 강의, 질의응답, 브레인스토밍, 문제해결, 프로젝트 학습 등을 하도록 했는데, 동료 간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대면 상황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룹토론-전체토론-그룹토론’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런 접근은 강사 1명 대 그룹 전체의 위계적 관계를 구성원 간의 다각적인 역동(dynamic) 관계로 바꿔주는 장점이 있다. 화상회의 시스템에는 그때그때 설문조사를 하는 기능도 대개 갖춰져 있어서 중간 중간 참가자들의 이해수준을 체크하는 것도 가능하다.

padlet, mural, miro, socrative 등 온라인 교육용으로 개발된 상호작용 기술도 매우 유용하다. 예를 들어 구글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mural, miro 등 브레인스토밍 도구를 활용하면 참가자들이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하여 온라인 카드에 적고 카드를 화면에 붙인 다음 비슷한 카드들을 군집화(clustering)하고 각 군집에 이름을 붙이는(naming) 카드 워크숍을 체계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요컨대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온라인 교육 테크놀로지는 아직 미흡하긴 하지만 치밀하게 설계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부분의 교수-학습 방법을 대면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게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선 몇 가지 전제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첫째, 화상회의 시스템과 학습관리시스템 등의 라이선스가 구비돼야 한다. 둘째, 강사진과 연수생이 위와 같은 접근방식과 테크놀로지에 익숙해져야 한다. 셋째, 훈련된 보조 진행 인력이 갖춰져야 한다. 예를 들어 실시간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집단대화를 하면서 miro 등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하려면 강사 외에도 최소 2인의 보조 인력이 투입돼야 한다. 이쪽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흔히 투덜거리듯이 ‘오리가 물 위에 평화롭게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수면 밑에서는 오리발이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채택한 온라인 교육이지만, 이번 과정에서 학습한 온라인의 강점을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온라인에서 계속되는 국제협력의 실천

비대면 교육으로 함께하는 KOFIH의 글로벌 파트너십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국경은 굳게 닫혔지만, 온라인에서 세계는 여전히 연결돼 있다. 국내외 보건 의료 연수에서도 비대면 교육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이유다. 시시각각 변하는 보건 의료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선진 방역 노하우와 의료기술의 공유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은 전 세계적 재난을 함께 극복하는 글로벌 보건안보 파트너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다양한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다.

글_ 송준호

온라인으로 열린 이종욱펠로우십 입교식 및 오리엔테이션

해마다 해외 보건 의료 인력을 초청해 중장기 연수를 수행하는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이 2020년엔 온라인을 통해 첫 인사를 나눴다. 지난 해 12월 17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입교식에는 2020년도 이종욱펠로우십 연수생 82명이 화상으로 참석했고, 위탁기관 관계자 15명 외 재단 직원은 현장에 함께 자리했다.

예년과 달리 입교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온라인으로 치르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기 위함이었다. 현장에서 진행된 전통음악 밴드의 축하공연을 화상으로 지켜보는 참석자들의 모습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행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색적인 풍경이었다.

입교식에 이어 오리엔테이션도 온라인으로 치러졌다.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도모 및 한국 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 행사는



사업 담당자와 실무 전문가 주도로 재단 사업과 이종욱펠로우십 소개, 한국 역사와 한국어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그리고 한국의 감염병 대응 시스템 소개로 구성됐다. 온라인 행사였지만 연수생들의 반응은 만족스러웠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연수에 필요한 내용을 안내해준 점이 인상 깊었다는 의견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 담당자 비대면 교육 확대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들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보건 의료 정보나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이에 따라 KOFIH는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지원기관·단체 종사자에 대한 보건관리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한 바 있다. 강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건 의료 서비스 운영 방향'을 비롯해 '감염성 질환 관리',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이해', '타 국가 이주민 보건 지원제도 사례와 이주와 건강에 따른 국제원칙' 등 다양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온라인 회의 플랫폼 'ZOOM'을 활용해 주당 2개 강의, 총 3주차로 편성된 이 강의는 사전 녹화본 30분 내외 방영 후 15분의 실시간 질의응답으로 구성됐다. 인터넷 환경의 불안정성을 고려해 사전 녹화를 중심으로



로 강의를 마련했지만, 대면 강의의 현장성도 살리기 위해 실시간 질의응답 코너도 함께 마련한 것이다.

교육 결과, 사전 등록자 101명, 누적 참여자 194명으로 전년의 83명 대비 22%나 증가한 수치를 보여 고무적이다. KOFIH는 실시간 강의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추가 시청을 원하는 교육생을 위해 동영상을 재단 유튜브 채널(KOFIH-Tube)에 약 3달간 추가 게시했다.

온·오프라인 병행하는 북한 보건의료 아카데미

KOFIH는 인력 양성과 네트워킹을 통해서도 북한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2013년부터 운영 중인 북한 보건의료 아카데미다. 이는 북한 보건의료 지원 분야의 인적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단체, 전문가,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엔 제8기 북한 보건의료 아카데미가 지난해 12월 강원 원주에서 열렸다. 이 행사엔 북한 보건의료 지원에 관심 있는 공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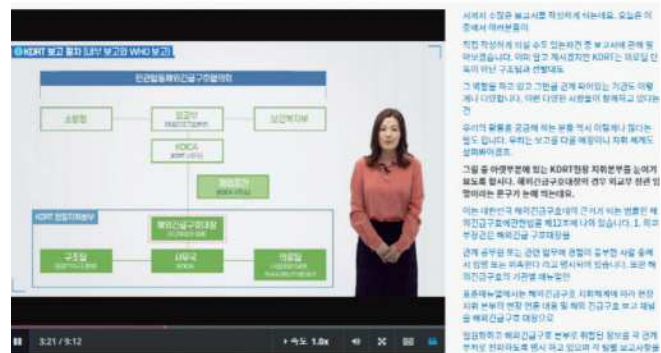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보건의료인 등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참석했다.

교육 내용은 북한 이주민의 보건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남북 보건의료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대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경험과 과제를 진단하고 향후 방향을 전망하는 주제 등으로 꾸러졌다. 또 북한 결핵관리를 소개하는 내용과 국제기구의 북한 보건의료 지원 현황을 되짚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행사가 끝난 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대북 보건의료 교류협력과 교류방안 모색에 대한 의견이 다수 등장해 향후 의제 설정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해외긴급구호 과정 온라인 보수교육

KOFIH는 국제적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의약품 지원이나 의료팀 파견



을 통해 인도주의를 실천해왔다. 그리고 이런 재난 발생에 대비해 평소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orea Disaster Relief Team: KDRT)의 보건의료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도 힘쓰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2021년도 제1차 해외긴급구호 의료팀 온라인 보수교육도 그런 역량강화 계획의 일환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 비대면 교육의 필요성이 지속됨에 따라 진행되는 이 온라인 교육은 학습자의 접근성과 개별 진도를 통한 학습 효과를 감안해 주기적으로 교육할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KDRT 의료팀 민간 인력풀 내 보수교육 미이수자들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오픈형 온라인 학습과정 플랫폼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를 통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마련한 응급의료팀(EMT) 기준을 충족하는 공통 과정을 이수하며 파견 실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교육이라는 방식의 특성상 접근성이 좋아 KDRT 의료팀 내 교육 이수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몽골·우즈베키스탄 보건의료인력 역량강화 위한 온라인 인프라 구축

KOFIH는 협력국 보건의료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몽골 국립진단치료센터 핵의학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온라인 교육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 플랫폼의 형태는 핵의학적 실전 지식 함양을 위한 임상과 이론 중심의 비대면 강의다. 지난해 11월 이론 강의 중심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업체와 계약하며 인프라 구축을 시작한 KOFIH는 올해는 심화학습과 실습 중심의 콘텐츠 제작도 추진 중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응급의료인력 역량강화와 응급의료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화상교육 계획에 착수했다. 타슈켄트시 및 사마르칸트주 응급의료인력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응급의료 정기 교육과정을 개설해 교육·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K)**

KOFIH 라오스·우간다 사무소

라오스 반시 팻다봉(Vansy Phetdavong)

“감염병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와 연간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KOFIH와 어떻게 함께 일하게 되었나요?

“저는 줄곧 Médecins du Monde, 유니세프 등 국제 비정부기구(INGO)에서 근무해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일하며 라오스에 새마을운동 철학을 알리기도 했죠. 2016년 2월 한 일본 기관에 근무하던 중 후아판도의 신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해 KOFIH 라오스 사무소에 지원을 요청한 것이 인연이 되어 KOFIH의 구인 광고를 살폈고, 마침내 지난해 3월 26일에 입사했습니다.”

– 현재 가장 매진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코로나19 지원사업과 2020년도 감염병관리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18개 활동이 올해 6월까지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정해진 일정에 맞춰 이뤄질 수 있도록 감염병관리국,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팬데믹 시대에 ‘라오스 감염병 진단 및 검역체계 구축사업’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KOFIH는 지방 단위 보건국과 관련 단체, 당국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북부도와 남부도에서 2차례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진료소 제공, 발열 체크를 위한 체온계 설치 등으로 시엥쿠앙 도보건국을 긴밀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건부, 세계보건기구(WHO), 공여기관과 협의해 응급상황실을 지원하고 현재 다양한 종류의 감염병 위험이 있는 보케오도에 실험실 기반 진단역량 강화 지원 등을 활발히 이어갈 것입니다.”

– 1년간의 KOFIH 활동으로 거둔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요?

“도 단위 현장역학훈련(FET) 수료생과 신속대응팀(RRT) 훈련생들이 라오스의 전염병과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활발하게 활동하며 핵심 인재로 성장한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성과를 확인한 라오스 정부와 도보건국은 RRT 훈련생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을 제안했죠. 코로나19 위험이 있는 도에 대한 모니터링·감독 활동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감염병관리국을 비롯한 라오스 정부에 대응팀의 준비성을 보여주었던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 KOFIH 활동을 하면서 새롭게 깨달거나 배우신 점이 있다면요?

“공여기관 입장에서 KOFIH의 재정 지원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KOFIH의 업무 환경이 좋아 내부 워크숍 등을 통해 직원들이 서로 유대감을 강화하면서 KOFIH 파트너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나가고 있습니다.”^K



열정으로 사이와 사이를 잇다

한국과 협력국 사이, 오늘과 내일 사이, 건강한 미래를 지탱하는 가교가 되기를 마지않는 사람들이 있다.
발로 뛰고 손을 맞잡으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해외사무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 현지 인재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글_ 김보미



우간다 카리사 루스(Kaliisa Ruth)

“결핵이 없는 우간다를 꿈꿉니다”

– KOFIH와 어떻게 함께 일하게 되었나요?

“저는 간호사이자 공공보건 전문가입니다. 우간다 캄팔라 민간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한 후, 비정부기구인 MSH(Management Sciences for Health)에서 결핵 수준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감독하는 일을 했었습니

다. 2018년 구직활동 중 KOFIH 우간다 사무소의 구인 광고를 보고 기쁜 마음으로 지원해 입사 기회를 잡았죠.”

– 결핵사업 담당자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나요?

“우간다 보건부 국립결핵실험실 및 부코만심비 보건국 관계자 등 관련 기관들과 원활한 공조를 이뤄내면서 사업지에서 결핵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핵검사기법 고도화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결핵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예산 집행관리 및 정산 검토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상시 관리 및 업데이트해 KOFIH에 결핵사업 성과를 제공하는 일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 KOFIH의 국가 결핵관리 역량강화사업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부코만심비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결핵관리 인식이 크게 개선됐고, 결핵에 대한 보건인력의 지식수준이 향상됐습니다. 또 DHIS2(보건데이터 수집, 추적 및 성과 관리를 위한 국가 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해 데이터 관리의 수준과 정확성도 높아졌습니다. 더불어 이종옥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통해 우간다 국가결핵실험실 직원들이 한국에 초청돼 연수를 받았습니다. 국립결핵실험실 시설 보강 및 관련 장비 지원도 이뤄져 사업 효율성이 제고됐습니다.”

– 2020년 결핵관리 역량 주요 지표가 목표치(3%) 이상의 성과를 낸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결핵취약지역 대상 결핵요원의 생물안전성 교육계획을 수립·진행하고, 외부정도관리(EQA)를 위한 기술 자문을 실시한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월별로 결핵요원들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실시해 시사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험실 개보수 및 진단장비 보급을 통해 인프라를 개선했습니다. 결핵환자에게 영양제 지원과 교통비 지급 등의 혜택을 주어 치료시설 방문을 유도하고 결핵환자 가족 추적관리를 통해 감염 예방을 줄일 수 있었으며, 부코만심비 및 마사카 지역 보건시설 대상 보건의료인력 교육을 강화해 결핵 치료 성공률을 목표치 대비 13% 이상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 2021년으로 5년차에 접어든 우간다 국가 결핵관리 역량강화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결핵 발생률을 20%가량 줄여 10만 명당 200건에서 160건으로 낮추는 우간다 국가전략계획에 따라 부코만심비 지역의 결핵 치료 성공률을 90%까지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 결핵 및 한센병 프로그램(NTLP)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관련 전문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민간 분야를 포함해 결핵 서비스 정보의 보편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국립결핵실험실 및 부코만심비 보건시설 등에 진단장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KOFIH 활동가로서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가요?

“한국의 첨단 기술을 통해 결핵 진단·관리·예방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춰 결핵이 없는 우간다를 꿈꿉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 장학금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꿈도 꾸고 있습니다.”





라오스(Laos) 국가 정보

수도 : 비엔티안
언어 : 라오스어
면적 : 2368만ha(세계 82위)
인구 : 737만9358명(세계 104위)
GDP : 181억7383만9128달러(세계112위)
한국과의 비행시간 : 약 5시간

KOFIH 라오스 사업 시작년도 : 2007년
KOFIH 라오스 현지 사무소 개소 : 2010년
KOFIH 라오스 주요 사업 내용 : 모자보건 중심
보건의료체계 및 의료기기 관리운영체계
강화사업 등

시엥쿠앙도(Xiangkhouang province) 지역

: 평원이 있는 가로 도시를 뜻하는 곳



Spot ① | 푸켕산(Phou-keng Mount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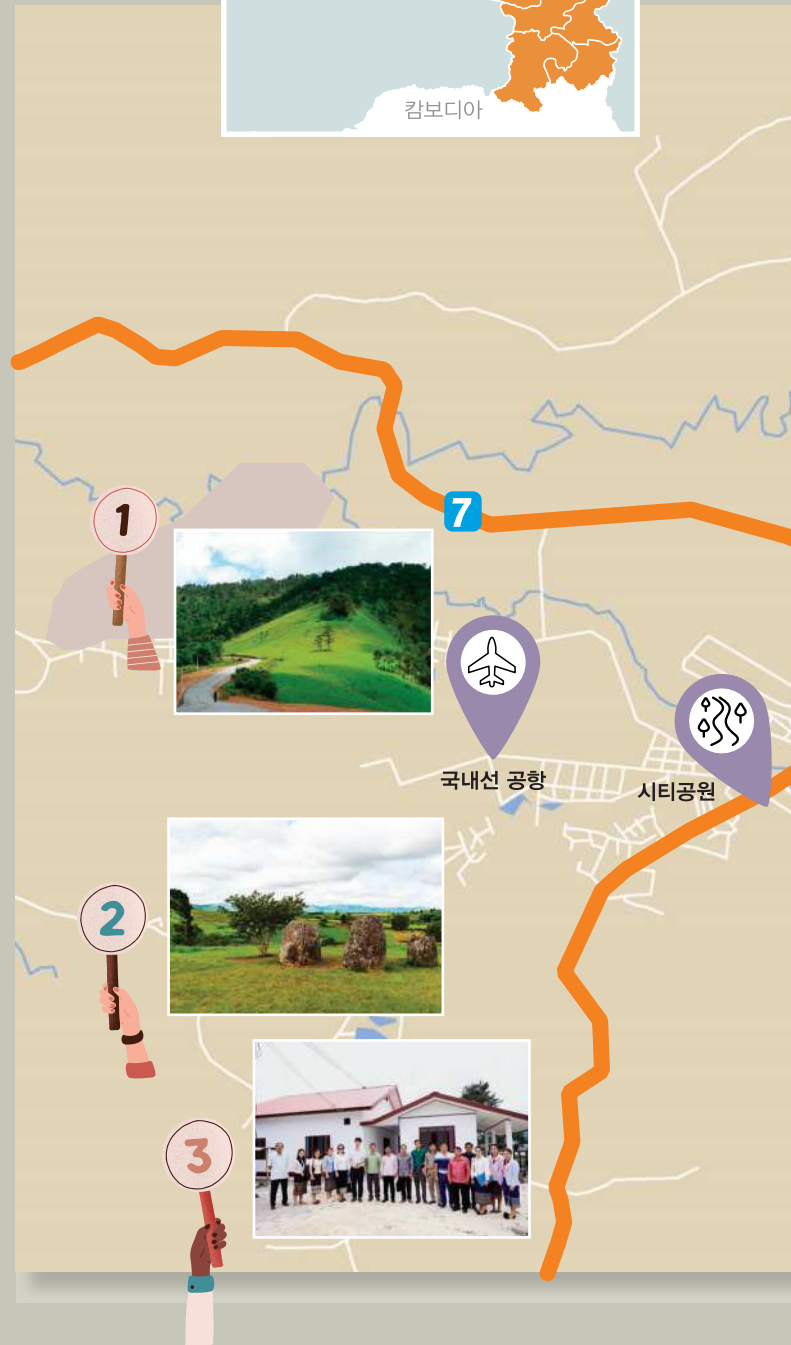
푸켕산은 시엥쿠앙도 지역 서쪽의 공항 부근에 위치해 있다. 다른 돌항아리 평원들과 다르게 매우 가파른 산 측면에 자리하고 있다. 라오스 정부에서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초입부터 산 정상까지 1500여 개의 계단을 설치해 산행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산을 오르다보면 채석장과 돌항아리 외에도 산 정상에 베트남전쟁 때 사용했던 숨겨진 방들이 있는 비밀 터널과 동굴이 있어 역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계단이라도 힘들긴 마찬가지일 터. 하지만 정상에 도착하는 순간, 넓은 평야가 펼쳐지면서 상쾌한 바람이 고단함을 씻겨줄 것이다.

Spot ② | 돌항아리 평원 1(Plain of Jars Site 1)

해당 유적지는 시엥쿠앙도 폰사반시 남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고원에 250여 개의 고대 돌항아리가 흩어져 있다. 기원전 500년~서기 500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대다수 항아리가 깨지거나 넘어져 있다. 대부분 높이 2~3m 정도이며, 무거운 것은 13톤까지 나간다. 돌항아리 평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됐다. 유골을 담은 항아리로 쓰였다는 설이 가장 보편적이지만, 언제 처음 만들어졌는지 왜 만들어졌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Spot ③ | 랫코이 보건소(Lardkhoy HC)

랫코이 보건소는 돌항아리 평원 1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해당 보건소 관할지역 내 인구가 증가하면서 건강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했다. 하지만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해 시엥쿠앙도 보건국에서 KOFIH에 보수공사를 요청, 보수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2020년). 현재 이곳에서 산전 진찰, 출산 사후관리, 백신 접종 등 지역사회 의료서비스가 제공돼 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KOFIH, 협력국과의 상생 좌표를 찾다

- 라오스 시엥쿠앙도(道)

지도엔 단순한 지리적 정보를 넘어 역사적 공간, 문화적 특색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녹아 있다. KOFIH 협력국 사업지 지역 마을들의 지도를 살펴 보면서 해당 협력국과 그곳 주민들을 한층 가까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상생의 좌표를 찾아보자.

글_ 김보미 사진 출처_ 위키매피아 세계지도 홈페이지, discoverlaos 홈페이지, Google Maps web site



우리의 새싹들을 위한 밝고 건강한 성장 지원 프로젝트

베트남 귀환여성 자녀 보건의료 지원사업

비행기로 5시간 너머 베트남에 소외된 우리 아이들이 있다.

가족 해체로 인해 베트남으로 귀환한 베트남 어머니와 한-베 자녀. 자녀의 경우 베트남에서 외국인(한국 국적)으로 분류돼 의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늘에 가려진 우리의 새싹들을 밝고 건강하게 돌보기 위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2019년부터 시작한 ‘베트남 귀환여성 자녀 보건의료 지원사업’의 성과를 살펴본다.

글_ 김보미

한국 남성-베트남 여성 간 국제결혼 후 가족 해체 25%, 심각한 사회문제화... '제3차 다문화가족 정책'에 반영

2000년 이후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 간 국제결혼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총 21만7916명) 중 베트남 여성은 7만1619명으로 약 33%를 차지한다. 이는 중국인 여성(7만1619명, 35%)과 거의 비등한 수치이며, 2015년을 기점으로 중국을 넘어서 1위를 유

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 간 국제결혼이 증가할수록 이혼 등에 따른 가족 해체 역시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 2008~2018년 최근 10년간 한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 7만1619명 중 1만7918명(약 25%)이 이혼했고, 많은 여성이 자녀와 함께 베트남으로 귀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의 경우 한국 남성과 이혼한 외국인 여성(5174명) 중 베트남 여성이 무려 약 30%(1570명)를 차지했다. 3가구 중 1가구 꼴이다.

이에 베트남 귀환여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정부부처의 '제3차 다문화가족 정책(2018~2022년)'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확정된 '대책과제 3. 베트남 귀환여성 및 한국 국적 자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이 추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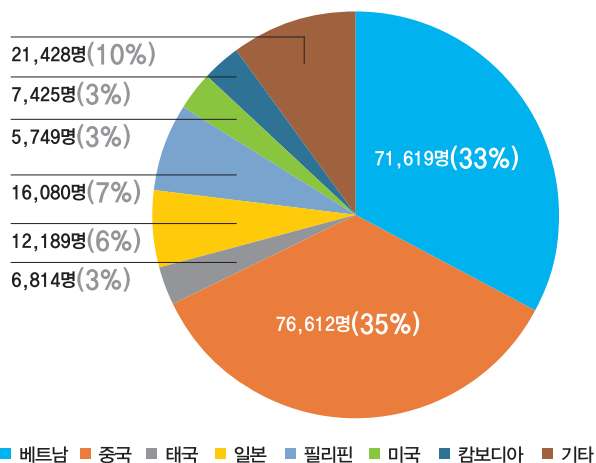
어머니의 나라 베트남에선 외국인으로 분류,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2019년부터 돌봄사업 시작

베트남 여성연맹(베트남 공산당 소속으로 여성의 평등권과 권익을 보호하며, 여성들의 연대와 참여를 독려하고 성 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회정치조직)에 따르면,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 해체를 경험한 한-베 자녀는 4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 베트남 남서부 켄터지역 출신 여성이 약 20%로, 다수의 자녀(321명, 2019년 9월 기준)가 남서부 지역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0~6세 아동은 베트남 무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한-베 자녀는 한국 국적으로 베트남에선 외국 국적자로 분류돼 의료보험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처지(외국 국적 자녀는 자부담)에 놓여 있다. 만약 한-베 자녀가 국적을 베트남으로 변경한다면, 베트남 현지 법령상 미성년자의 경우 타 국적 보호자(아버지 쪽)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 아버지의 경우 대부분 연락 두절 등으로 국적 변경이 어려운 속사정이 있었다. 게다가 베트남은 도심 외 지역의 경우 접근성이 낮아 질병 발생 시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등 건강에 대한 인식이 낮아 병원 이용률이 저조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KOFIH는 베트남 귀환여성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베트남 남서

**2008~2018년 국적별
국제결혼(한국남+외국녀) 인원 수(비율)**





한-베 자녀 및 보호자 건강교육.



한-베 자녀 건강검진.

부 지역을 중심으로 2019년부터 비교적 시설이 깔끔하고 진단장비가 많은 꾀터시 아동병원에서 한-베 자녀(0~16세)를 초청해 ‘건강검진 및 치료서비스 제공’ 사업을 추진했다.

2019년 첫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서 사업 초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귀환여성 연락처 변경에 따른 연락 두절, 거주지역과 사업지역 간 장거리 이동, 가족 해체 여파로 외부인의 접촉을 꺼리는 한-베 자녀의 심리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참여율이 저조했다.

하지만 베트남 귀환여성 자녀 지원 관련 사전조사 시 양국 정부 간 한국 국적 한-베 자녀를 위한 의료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현지 협력기관인 꾀터 여성연맹, 꾀터 아동병원은 수혜자 발굴 등 긴밀한 협조로 점차 참여율을 올려나갔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현지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한-베 자녀 건강검진(종합건강검진 지원)을 실시했고, 질병이 있는 아동은 최신 장비를 보유한 꾀터 아동병원과 연계해 질병 치료 진료비(질병 치료 지원)를 연중 내내 지원했다. 또한 자녀의 성장발달, 필수 예방접종, 감염병 등의 건강정보가 담긴 콘텐츠(건강관리 교육)도 베트남어로 발간해 무료로 배포했다.

**사업 진행 3년차... 건강관리 인식 변화에 힘써
건강관리 인식 강화 31% 상승, 사업 만족도 94.4점 달성**

KOFIH는 일시적 검진이라는 물고기가 아닌,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 무엇보다도 건강관리 인식 변화에 힘을 기울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 사업이 중단된 적도 있었지만, 보호자

‘베트남 귀환여성 자녀 보건의료 지원사업’ 성과 및 목표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한-베 자녀 보호자 건강관리 인식 강화	(목표) 10% 이상	(목표) 10% 이상	(목표) 10% 이상
	(실적) 17.9% (79% 초과 달성) * 교육 전 : 52.1점→교육 후 : 61.4점	(실적) 31.3% (21.3% 초과 달성) * 교육 전 : 52.7점→교육 후 : 69.2점	
한-베 자녀 보호자 사업 만족도	(목표) 70점 이상	(목표) 80점 이상	(목표) 85점 이상
	(실적) 93.0점 (32.9% 초과 달성)	(실적) 94.4점 (18.0% 초과 달성)	

뿐 아니라 자녀의 눈높이에서도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초등학생 버전으로 개발하고 교육을 진행해나갔다.

특히 질병 예방법, 아동 정서장애의 원인 및 예방, 대응방법 등의 교육을 통해 ‘자녀 돌봄’에 대한 건강관리 인식이 개선되면서 건강한 생활습관 등 긍정적인 변화와 안정적인 심리 변화를 유도했다.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과를 측정한 결과, 베트남 귀환여성들은 본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 심화 인터뷰를 통해선 보호자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자녀 입장에서 바라보는 정서적 시각 등 일상생활에서 놓치고 있었던 내용을 배워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집에 들어오거나 식사 직전 자녀에게 손을 씻도록 하고 있으며, 식사 직후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양치질을 했는지 체크하고 있어요.”, “자녀의 심적 장애 완화를 위해 평소보다 많은 대화를 통해 자녀의 심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로 대하고 있어요.”

이러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2021년에는 현지의 거리두기 완화에 맞춰 체육활동도 더불어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모두가 어려운 이때, 가족의 소중함 또한 깊어만 간다. 가족 해체의 아픔을 딛고 자녀와 함께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간 베트남 귀환여성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우리의 아이들인 한-베 자녀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을 계속 가져야 할 것이다. **K**

‘2020 KOFIH를 빛낸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2020년 국제개발협력 분야 국무조정실장 표창

ODA사업부 천주환 부장 “협력으로 이뤄낸 글로벌 방역 공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공적개발원조(ODA) 협력국에 진단키트, 방호물품, 필수 의료장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며 글로벌 방역 공조를 이뤄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그 현장을 지휘한 천주환 부장은 “협력국 보건부와 섬 없는 협의를 통해 수요를 파악한 해외사무소 직원들과 이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고 물품을 구매해 운송한 본부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한다. 국가별로 방역 원칙과 요청사항이 다르고 물품 확보 및 재원의 한계도 있었지만, 가장 필요로 하는 물품을 중심으로 적합한 운송수단을 찾아 적시적소에 지원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고,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한 전대미문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매순간 기존 방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 고군분투했다고.

글로벌 보건안보 및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천 부장. 2021년에도 그의 발걸음은 쉴 틈이 없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유공 외교부 장관 표창

의료시설융합사업팀TF 신치범 부장 “KOFIH의 위상을 공고하게”

2019년 11월 KOFIH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아세안 보건의료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각국 정상 및 대표단을 대상으로 한국 보건의료 ODA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효율적인 지원 방향을 모색해 지속가능한 동행의 초석을 마련한 자리로, 이를 통해 KOFIH는 보건의료 ODA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성과 보고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신치범 부장은 “다양한 참여 기관들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했다. 성과 보고회의 성공은 새로운 ODA사업을 발굴하는 데 탄탄한 밑거름이 됐고, 그 결과 올해 아세안 지역에서 총 5건의 보건 분야 개발협력사업이 새롭게 시작됐다. 앞으로의 새로운 10년을 위해, 지난 10년 동안 KOFIH와 함께 성장해온 신 부장은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다시 성장을 꿈꾼다.



2020년 보건복지 정보보호 분야 유공자 표창

경영기획부 정재웅 대리 “안전한 KOFIH 정보보안을 위해”

2020년 KOFIH 정보시스템의 안전율은 98.1%를 달성했다. 이는 정보시스템 서버의 취약점 95건을 발 빠르게 조치해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파일 업로드나 악성코드 접근을 차단한 정재웅 대리가 있기에 가능했다. 국가정보보안 지침에 맞춰 재단 규정, 가이드, 정보보안 제품 등을 현행화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한 것이다.

2020년 4분기에 실시한 사이버 위기 대응 해킹 메일 모의 훈련도 효과적이었다. 전 직원에게 해킹 메일 유사 사례를 보여주며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한 덕분에, 보건복지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택배사, 금융사에서 온 것처럼 해킹 메일을 꾸며 무작위로 배포했을 때 총 10일간 열람자가 3명에 그쳤고, 이들이 모두 신고해 신고율 100%를 달성할 수 있었다.

KOFIH의 정보보안 지킴이 정 대리는 “정보기술(IT)기기 사용이 늘어감에 따라 해킹에 노출될 가능성도 점점 커지는데, 그 렬수록 개인의 보안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최초로 반부패경영체계 국제인증 획득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이사장 추무진)은 지난 1월 5일 KOFIH 8층 대회의실에서 반부패경영체계 국제표준인 ISO 37001 인증 수여식을 진행했다.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채택·공표한, 글로벌 수준에서 통용될 수 있는 반부패경영체계의 표준 가이드라인이다.

KOFIH는 2018년부터 윤리·인권경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사회가치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엔 윤리경영 수준을 한층 강화하고자 반부패경영체계 국제표준인 ISO 37001 도입을 결정했다. 또한 같은 해 10월부터 반부패경영체계 지침 등 제도 수립, 본부별 부패 위험 식별 및 관리방안 수립, 내부 심사원 양성 및 내부 심사 실시 등 반부패경영체계 표준화 작업을 진행해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는 최초로 ISO 37001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KOFIH 추무진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재단의 특성상 반부패경영체계 국제인증은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OFIH는 이번 ISO 37001 인증으로 반부패경영체계가 조직문화로 정착되고 임직원에게 내재화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다.



향후 5년을 향해... 2021년 제1차 이사회 개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은 ‘2021년 제1회 이사회’를 지난 2월 18일 KOFIH 6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엔 KOFIH 추무진 이사장과 최원일 사무총장을 비롯해 정홍근 이사(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 등 총 14명이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2021년 제1회 이사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사업성과 및 예산 편성이 논의됐다. ▲2020년 주요 사업성과 보고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 보고 ▲제3차 중장기발전 계획 보고(2021~2025년) 등이 있었다. 2021년 회계기

간 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후원금, 보건복지부로부터 정부보조금 추가세입이 발생해 이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있었다.

그밖에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거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한 지정요건 내용을 신설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9년 10월 1일 시행) 및 서울지방노동청 취업규칙 검토지도(2020년 10월)에 따라 내부 인사규정 등을 개정했다.

KOFIH, 가나 북부지역 복강경 수술 활성화 위한 도약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과 가나 2대 국립병원인 콤포아노치 수련병원(Komfo Anokye Teaching Hospital, 이하 KATH)은 지난 1월 19일 콤포아노치 수련병원에서 ‘복강경 수술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KOFIH 추무진 이사장(가나-KOFIH 사무소장)과 KATH 오헤네바 단소 병원장이 체결한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복강경 수술을 위한 의료장비 지원 ▲수술 전담 의료진에 대한 임상실습교육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KATH는 2008년 미국과 독일의 지원을 통해 복강경 수술장비와 의료진 대상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환자들에게 복강경 수술을 제공한 바 있으나, 6년 전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전담 의사가 퇴직한 이후로 관련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됐다.

수술실에 방치된 의료장비를 보고 안타까움을 느낀 KATH 소속 의사 도미니크 다르과는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통해 인연을 맺은 가나-KOFIH 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고, 가나-KOFIH 사무소와 함께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복강경 수술 역량강화사업을 기획하게 됐다. 도미니크 다르과는 현재 이종욱펠로우십 임상과정 참여를 위해 국내에 체류 중이며, 오는 5월 교육과정 종료 후 콤포아노치 수련병원으로 복귀해 본 사업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KATH 오헤네바 단소 병원장은 “복강경 수술은 개복수술보다 훨씬 안전하고, 부작용 및 후유증이 적으며 회복이 빨라 환자와 병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KOFIH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라오스 의료기기 유지보수 현장 모니터링 실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은 의료기기 관리운영체계 강화사업을 위해 라오스 현지 사무소에서 ‘의료기기 유지보수 및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루앙프라방 도병원과 우돔싸이 도병원을, 올해 1월 초에는 씨엥쿠앙 도병원을 방문했다. KOFIH는 중앙 의료물자공급센터(MPSC) 및 도병원 의료기기 기술인력으로 모바일 서비스팀(각 지역을 이동하며 의료기기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서비스팀)을 구성해 MPSC 및 도병원 엔지니어들에 의한 의료기기 수리 및 유지보수를 지원했다. 또한 KOFIH가 이미 지원한 계측기를 사용해 주요 임상부서의 의료기기를 점검했으며, 의료기기별 맞춤형 수리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우돔싸이 도병원 캄판 사야봉 원장은 “KOFIH의 모든 지원, 특히 의료기기 유지 보수 및 수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모바일 서비스 프로젝트는 우돔싸이 도병원

의 의료기기 유지 보수 및 수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KOFIH 이혜영 라오스 사무소장은 “모바일 서비스가 의료기기 수리 지원뿐만 아니라, 중앙단위 의료기기 기술인력과 도단위 의료기기 기술인력의 상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OFIH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수리를 위한 개별 현장교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독일 한인간호협회, ‘파독근로자 보건의료 지원사업’ 봉사자 화상회의 진행

(사)재독한인간호협회(이하 한인간호협회)는 지난해 12월 21일 ‘파독근로자 보건의료 지원사업’ 봉사자와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파독근로자 보건의료 지원사업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인간호협회는 현재까지 독일에서 거주 중인 한인 파독근로자(간호협회 추산 약 4400명, 광부 900명·간호사 3500명)를 대상으로 ▲지역별 치매 예방·심신 단련 세미나 개최 ▲독일 수발보험제도 가입방법 안내 ▲방문보건서비스(혈당 측정, 생필품 지원) ▲봉사자 역량 공유 등 수혜자 맞춤형 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다. 독일 수발보험제도는 독일에서 장애폭으로 인해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수발의 필요 정도를 등급으로 구분해 현물 또는 현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한인간호협회 문정균 회장은 화상회의를 통해 “독일 현지에서 진행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수혜자와 많은 한인동포에게 정확한 안내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어려운 시기에도 늘 함께해주시고 2021년에도 힘을 합쳐 나아가자”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한인간호협회는 1960년대 초반부터 종교단체의 한독교류사업 차원에서 시작돼 1966년 1월부터는 정부 차원에서 한인간호사 역사가 시작됐다. 집계상 독일 파견 누적 1만250명이 취업했으며, 재독동포 역사의 근원지인 중부 독일지역에 최초로 많은 간호사들이 생활해 독일 한인사회의 주류를 이뤘다. 파독근로자 보건의료 지원사업은 세월이 흘러 노령화되면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한인 파독광부·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며,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이동검진차량 신규 제작



수 무료진료소 운영기관(단체)들이 진단할 수 있는 의료기기가 부족한것도 이유로 작용했다.

이에 KOFIH는 기존에 운영하던 외국인 근로자 이동검진차량(2008년 11월 제작)의 사용연한 경과 및 노후화에 따라 새로 제작된 이동검진차량을 통해 지속적이고 질 좋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은 지난해 12월 22일 신규 제작한 이동검진(안과·이비인후과)차량 출차 기념식을 진행했다. 출차 기념식엔 KOFIH 박종화·이수구 전 이사장이 참석했고, 해당 이동검진차량은 47인승 버스에 안과·이비인후과 진료에 적합한 의료장비를 갖췄다.

이동검진차량은 의사소통 문제,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료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한 취지로 제작됐다. 또한 상당

‘KOFIH의 동반자’ 협력국, 그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할 질병은?

협력국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과 동고동락하는 존재다. 해당 국가 특유의 기후와 풍토, 위생 수준의 격차 등에서 기인하는 질병들이 그곳 국민의 건강을 수시로 위협하기에 더욱 그렇다. 모두가 건강한 지구촌을 꿈꾸는 KOFIH가 주요 협력국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질병들에 대해 알아봤다.

글_ 송준호



아프리카

가나,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

- ▶ 공통적으로 주의해야 할 질병: 결핵·광견병(전 국가), 탄저병(가나,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수막염-내수막구균(가나, 에티오피아, 우간다)
- ▶ 특정 국가에서 주의해야 할 질병: 라사열(가나, 에티오피아), 리프트 밸리열(RVF)(우간다)

동남아시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 ▶ 공통적으로 주의해야 할 질병: 결핵·광견병(전 국가), 조류인플루엔자 H5N1(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렘토스피라증(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탄저병(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 ▶ 특정 국가에서 주의해야 할 질병: 쥐폐선충병·한타바이러스(베트남)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 ▶ 공통적으로 주의해야 할 질병: 결핵·광견병(전 국가)
- ▶ 특정 국가에서 주의해야 할 질병: 흑사병·탄저병(몽골)

결핵(TB) | 위험 요인 : 기침, 재채기

원인 중증 박테리아성 질병. 박테리아는 감염자가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 공기 중에 살포. 대부분 오랜 시간 감염자 가까이 노출될 때 감염.

증상 활동성 결핵은 일반적으로 기침, 고열, 야간 발한, 체중 감소, 무력감, 잠복(비활동성) 결핵은 무증상.



치료 대부분의 결핵균은 항균제로 치료 가능. 방치 시 활동성 결핵으로 치명적. 결핵 발생 국가에서는 결핵 방지 위해 BCG(Bacille Calmette-Guerin) 백신 제공

예방 혼잡한 장소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거나 기침하는 사람을 피해서 위험을 최소화.



광견병 | 위험 요인 : 동물

원인 광견병에 걸린 동물, 특히 개에게 물리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 걸리는 바이러스성 질환.

증상 감염되면 바이러스가 신경계를 통해 이동하며 마비 유발. 혼수상태나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므로 동물이나 박쥐 광견병이 있는 나라에서 물리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는 반드시 치료받아야 함.



치료 즉시 상처 부위를 비누와 물로 씻고 가능한 경우 포비돈 요오드액으로 세척. 현지 보건당국에 알리거나 자격을 갖춘 정보원 또는 지원 업체에 의료 조언 요청.

예방 광견병 백신은 광견병에 걸린 동물에게 물리거나 핏줄이 닿아도 매우 효과적. 광견병 발생국에서는 장기 체류자에게 '사전 예방 백신 접종' 권장. 백신 접종 시 상처 치료 용이.



탄저병 | 위험 요인 : 동물

원인 포자형성균 탄저균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전염병. 발굽 포유류에서 가장 많이 발생. 인간 탄저병 중 피부 탄저병, 흡입 탄저병, 장 탄저병이 특히 심각. 이중 피부 탄저병이 95%인데, 주로 동물 가죽이나 털, 뼈로 된 제품, 양털 접촉을 통해 감염.

증상 일반적으로 노출 후 7일 이내에 증상 진전. 피부의 상처나 찰과상을 통해 사람에게 전염되면 벌레에 물린 것처럼 가렵고 수포가 생긴 후 터져 붓기와 함께 검은 궤양 형성. 림프절에 통증이 생기기도 함. 흡입 탄저병은 초기에 감기 증세와 유사. 며칠 후 심각한 호흡 문제와 쇼크 유발. 장 탄저병은 장의 급성 염증이 특징. 초기 증상은 구토, 식욕 감퇴, 구토 및 발열, 복부 통증, 토혈, 심각한 설사 등.



치료 초기 치료가 중요. 지연되면 생존 확률 저하. 주로 페니실린, 독시사이클린, 플루오로퀴놀론에 민감. 항생제 복용으로 감염 예방 가능.

예방 탄저병 백신이 감염을 예방하지만 일반 대중에게 권장되지 않고 구하기도 어려움.



조류인플루엔자 H5N1 | 위험 요인 : 동물

원인 주로 조류로부터 영향을 받는 독감 바이러스. 감염된 새의 변, 분비물, 혈액 및 장기에서 바이러스 접촉. 특히 개발도상국의 가금류 농가에서 걸릴 위험 높음. H5N1 계통은 지역 가금류 단시간 몰살 가능. 60개국 이상에서 검출, 여러 국가에 영구적 존재.

증상 심각한 증상과 함께 약 60% 사망. 일반적으로 감염된 후 2~5일 이내에 질환 발생, 최대 17일까지도 발생.

치료 H5N1은 일반 비누로 손을 씻거나 일반 세제 및 살균제로 표면 세척 시 제거 가능. 식품 속 바이러스는 충분한 조리만으로도 제거.



예방 감염 우려 국가에서 살아 있는 동물을 파는 시장, 가금류 및 돼지농장 접근 주의. 새 또는 고양이 등의 동물 접촉에 주의. 가금류의 변에 의한 오염 위험 있는 표면 접촉 금지. 항상 높은 수준의 개인위생 유지. 가금류 제품 및 알류는 섭취 전 충분히 조리.



변이 바이러스의 잇단 출현... 코로나19는 지금도 진화 중

지난해 12월 영국발(發) 'B.1.1.7'을 시작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등 곳곳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다. 일각에선 기존 코로나19에
대항하기 위해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코로나19에 대비해 만들어진 백신의 예방 효과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글_ 이정아 동아시아연구소 기자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여 만에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1억2600
만 명(3월 29일 기준)을 넘어섰다. 그동안 희망적
인 변화도 있었는데,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제약회사에서
코로나19에 대항할 백신을 개발해 접종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예상보다 빠르게 백신이 개발되면서 코로나19가 머지않아 종식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세계 곳곳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코로나19와의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가 맨 처음 발견된 곳은 영국이다. 'B.1.1.7'이라고 이름
붙은 이 변이 바이러스를 시작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등에서 각각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다. 3월 15일 현

재까지 발견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12종이다. 3월 29일 현재까
지 국내에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밝혀진 사례도 289건이다.
지난 1월 19일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보건규약 긴급위원회를
 열어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다. 각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바이러스가 어떤 형태로 변이
가 나타나는지 감시해 전 세계적으로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이
바이러스들이 기존에 퍼진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발
혀졌기 때문이다.

기존 바이러스가 진화한 형태

원래 코로나바이러스는 사람에게 기침과 재채기, 콧물 등 가벼운 감기
증상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지금까지 인류와 가장 가깝고도 오랫동안
함께했던 바이러스다. 변이를 잘 일으키는 탓에 감기를 100% 잡는 치
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는 않았지만, 인류와 오랫동안 함께해왔기 때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해외입국 자가격리자에 대한 현장 실태 점검도 이어지고 있다.

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도 그다지 치명적이지 않았다.

그런데 21세기 들어 비교적 치명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2003년에 유행했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사스)과 2015년에 유행했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그리고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다. 이들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에 변이가 많이 생기면서 바이러스의 종 자체가 달라진 것이다. 즉, 동일한 코로나바이러스 계열이지만 사스와 메르스, 코로나19는 서로 다른 변종들이다.

한편 최근 전 세계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같은 코로나19 내에서 돌연변이가 작게 일어난 형태다. 유전자를 이루는 염기서열 수준에서 조금씩 바뀌었다는 의미다. 그래서 변종 바이러스와 달리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와 유전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숙주를 감염시키는 능력이나 증상을 일으키는 정도 등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바이러스의 기본적인 특성 자체는 기존 바이러스와 거의 같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에도 기존 코로나19와 비교했을 때 유전적으로 0.07% 정도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 ↑, 치사율 ↓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도 기본적인 특성은 기존 코로나19와 비슷하다. 대부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보인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변이 바이러스 중 일부는 전파력이 기존 코로나19보다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감염자가 더 많이 발생해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자연계에서 바이러스는 대개 진화할수록 전파력은 강하게, 치사율은

약하게 변이한다. 바이러스 입장에서 숙주를 빨리 죽이는 것보다 오래 살려두면서 기침이나 재채기, 콧물 등 가벼운 증상을 보이게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체내에서 복제된 바이러스들이 침방울이나 콧물 등을 통해 바깥으로 나가 다른 숙주로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이하게도 영국에서 나타난 변이 바이러스인 B.1.1.7은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약 75%, 치사율이 30% 이상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후에 나타난 변이 바이러스 중에서도 B.1.1.7처럼 기존 코로나19보다 치사율이 높은 것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기존 백신의 예방 효과 떨어뜨릴 수도

사람들이 걱정하는 문제는 하나 더 있다. 이제야 겨우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돼 접종을 시작했는데, 변이 바이러스에는 백신이 듣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백신은 기존 코로나19에 대비해 만들어진데 변이 바이러스가 이와 다르다면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백신은 바이러스가 인간 세포에 침입할 때 달라붙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공격하는 원리다. 만약 바이러스가 이 단백질의 형태를 바꾸는 쪽으로 진화했다면 그만큼 백신이 공격하는 효과도 떨어질 수 있다.

미국 하버드대 의대와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연구팀이 최근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대상으로 기존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예방 효과를 떨어뜨리는지 연구했다. 백신으로 생성되는 항체를 얼마나 잘 피할 수 있는지 연구한 결과, 기존 코로나19에 비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는 20~40배, 브라질과 일본에서 나타난 변이 바이러스는 5~7배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백신이 전혀 무기력하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체내에는 백신을 맞았을 때 생기는 항체뿐만 아니라 다른 면역세포들이 있으므로 예상보다 예방 효과가 커질 수 있다.

한편 희망적인 연구 결과도 있다. 노바백스는 3월 11일 영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한 결과, 예방효과가 기존 코로나19에 대해 96.4%,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86% 정도라고 밝혔다. 아주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특히 기존 코로나19나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중증이나 사망에까지 이르는 것을 100%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

함께 만드는 <KOFIH Letter>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2020년 <KOFIH Letter> 겨울호를 읽고 많은 분들이 엽서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좋은 말씀, 소중한 의견을 기억하며 더 나은 <KOFIH Letter>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KOFIH Letter> 겨울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강구권(대구 달서구)
강병국(서울 강동구)
강현숙(경기 시흥시)
육지원(전남 여주시)
이인식(대전 서구)
이정숙(서울 관악구)
이현정(인천 남동구)
정명진(서울 강남구)
정해수(광주 북구)
홍경석(대전 대덕구)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원고 접수

<KOFIH Letter>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독자엽서에 자유롭게 써주세요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9 아시아미디어타워 705, 706호
(주)코리아프린테크 <KOFIH Letter> 사보 담당자 앞



이정숙(서울 관악구)

‘우즈베키스탄 아리랑요양원 코로나19 대응 현장’ 기사를 의미 있게 읽었습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계신 요양원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 정부, KOFIH 직원과 현지 직원 등의 신속한 대처와 협업으로 빠르게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더 나아가 상황이 종료됐음에도 직원을 파견해 사후 점검을 게을리하지 않은 KOFIH에겐 더욱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인식(대전 서구)

의료 후진 국가들을 대상으로 KOFIH가 벌이고 있는 인도주의 사업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통해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뻐뻐합니다. ‘창업보다 수성(守城)이 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의료기관 건립과 의료 기자재 공급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잘 운용될 수 있도록 KOFIH가 더욱 지원에 신경을 써서 관련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홍경석(대전 대덕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떻게 연대하고 협력할 것인가’ 기사를 흥미롭게 봤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국민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코로나의 마수’에서 벗어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국경을 넘어 인류애를 실천하고 있는 KOFIH의 인도주의 사업 열정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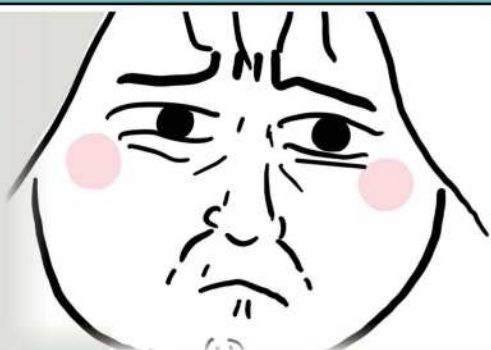
강현숙(경기 시흥시)

이번 호에서도 모든 기사들이 좋았지만, 그중에서도 ‘가난하고 소외된 인류의 주치의, 이종욱 박사를 만나다’ 기사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코로나19가 일상이 돼버린 지금 지쳐 있을 때면 너무 힘이 들어 가끔씩 힐링 글귀 같은 걸 찾아 읽곤 하는데, 이 기사를 통해 저를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육지원(전남 여주시)

이번 호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인류의 주치의, 이종욱 박사를 만나다’ 기사를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맞으면서 더욱 이 박사님이 그리워집니다. 지구촌 곳곳의 병든 이들을 찾아다니며 세상의 낮은 곳에서 먼저 손을 내밀던 그를 존경합니다. 장래 희망이 의사인 중학생 아들에게 <이종욱 평전> 책도 사주고, 국립대전현충원 이종욱 묘소에도 참배하고, 이 박사님의 후예들을 위한 ‘한국 잡월드’도 둘러보려고요.

COVID-19 예방행동수칙



**감염위험
★★5배★★**

내 거친 생각과
마스크 따위 쓰지 않는다...

불안한 눈빛과
마스크 프리라이더



**감염위험
★★5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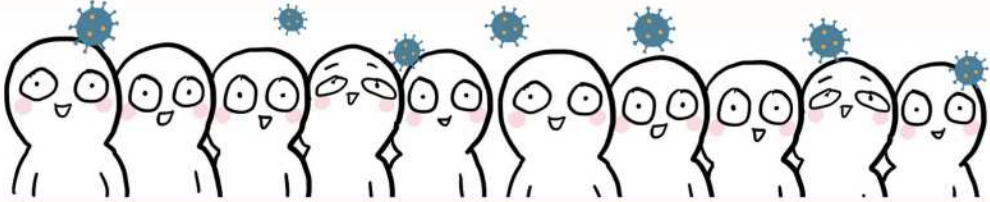
텍스크



**감염위험
★★5배★★**

그걸 지켜보는 너
나는 괜찮을 거란 막연한 생각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놀면 뭐하니

**감염위험
★★5배★★**

"올바른" 마스크 착용 후

1m 이상 거리유지 시 감염위험 82% 감소!

꼭!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기억해야 할 사업장 내 감염예방 수칙



사업장 기본 예방수칙



이행 ☐ 미이행 ☐

전담체계 구축,
방역지침 안내·교육*



이행 ☐ 미이행 ☐

시간을 나누어 출·퇴근하고
유연근무 및 휴가 적극 활용



이행 ☐ 미이행 ☐

불필요한 출장·대면회의
·사적모임 자제하기



이행 ☐ 미이행 ☐

의심증상 발현 시 자택에서
1~2일 경과 관찰하기



이행 ☐ 미이행 ☐

사무·작업공간
밀집 최소화하기



이행 ☐ 미이행 ☐

사무·작업공간 및 용품
주기적 소독·환기

* 방역수칙 교육 등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밀집시설(기숙사, 샤워시설, 구내식당, 휴게시설 등) 예방수칙



이행 ☐ 미이행 ☐

밀집시설 이용 전·후
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씻기



이행 ☐ 미이행 ☐

여러 명이 모여서 흡연하거나
동시간 다수 이용 자제하기



이행 ☐ 미이행 ☐

밀집시설 자주 소독,
환기하기



이행 ☐ 미이행 ☐

취식 외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이행 ☐ 미이행 ☐

식사 시에도
거리두기·칸막이 설치



이행 ☐ 미이행 ☐

공용집게 등은 사용 전·후
소독 또는 장갑 착용
음식은 가급적 개인별 덜어먹기

개인 위생 관리와 올바른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보호·보상제도

보호

- 비밀보장 : 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 공개 금지
- 보호조치 :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 금지
- 신변보호 : 신고 등을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요청
- 책임감면 :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등의 감경 또는 면제 가능

보상

- 보상금 : 신고로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 등을 가져온 경우
※ 내부공익신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 한 자만 해당
- 포상금 : 신고로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 구조금 : 신고로 피해나 비용이 발생한 경우(치료비, 이사비 등)



세상을 바꾸는 용기

부패·공익신고

1398
110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상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 또는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외·유인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 6대 분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284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 행위

신고대상

상담 및 신고

| 상담 |

- 1398 또는 국민콜 110

| 신고 |

- 인터넷 www.clean.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 공익신고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신고방법



국민권익위원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경은 닫혔지만,
 온라인에서 세계는 여전히 연결돼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0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 입교식’도 온라인으로 치러졌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KOFIH의 선진 방역 노하우 및 의료기술 공유는
 이처럼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습니다.